

올 여름 냉감소재 의류 불티날 듯

국제섬유신문(2023. 4. 14.)

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때 이른 더운 날씨로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며, 전기료 폭탄까지 겹쳐 냉감소재 기능성 의류 수요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.

- 때 이른 더위를 시작으로 올 여름이 길고 무더울 것으로 예보되면서 내수 패션시장에 기능성 냉감 소재 의류가 돌풍을 일으킬 전망으로 최근 수년만에 화섬 냉감기능성 소재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.
-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여름 더위가 예년보다 빠르고 길 것으로 예보되면서 내수 패션기업들이 티셔츠와 레깅스를 포함한 여름용 의류에 수분율이 일반사보다 높은 시원한 촉감의 냉감소재 의류 공급을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.
- 일반사의 차가움 수치(Q-Max)가 0.15 이하인데 비해 기능성 냉감소재는 0.18 이상으로 수분 함유량이 높아 피부 접촉 시 차가움을 주는 특성을 갖고 있어 여름용 의류 소재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.
- 국내 화섬메이커들이 독자 브랜드를 내걸고 공급하고 있는 기능성 냉감소재는 각기 세계 최고 수준의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을 정도로 이 부문 개발이 활발하며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- 일반적으로 화섬 중 폴리에스테르사 소재보다 나일론의 수분율이 높고 이보다 폴리에틸렌 수분율과 전도율은 더 높지만 폴리에틸렌은 염색성 문제로 침장·침구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.
- 자연섬유인 인견사의 레이온은 수분율이 10%에 달해 냉감 효과가 가장 높은데 반해 가격이 비싸고 구김이 생겨 가격이 레이온보다 저렴한 화섬 냉감기능성 소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.
- 화섬메이커들이 냉감 소재를 비롯한 기능성 소재 개발에 전력투구한 것은 일반사의 경우 중국의 저가 투매에 경쟁력을 상실한 데 반해 특수사는 품목에 따라 레굴러사보다 최소 2배, 많게는 5배 이상까지 가격차가 커 수익성 면에서도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.